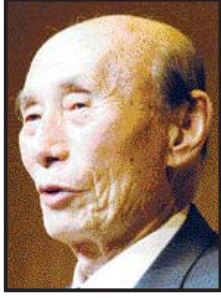


한국 출판계 이끈 '거목'

타계한 정진숙 을유문화사 대표

1945년 을유문화사를 창립해 우리나라 출판계를 이끌어 온 은석(隱石) 정진숙(鄭鎭肅·사진) 을유문화사 대표이사 회장이 지난 22일 오후 3시3분 서울 평창동 자택에서 노환으로 타계했다. 향년 96세.



1912년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난 고인은 휘문고등보통학교를 나와 보성전문학교를 다니다 1935년 중퇴했다.

이후 일제강점기에 조흥은행의 전신인 동일은행에서 근무하던 고인은 을유년(乙酉年)인 1945년 12월 1일 평소 친분이 있던 조풍연(작가), 윤석중(아동문학가), 민병도(전 한국은행 총재) 등과 함께 을유문화사를 창립, 63년동안 출판 외길을 걸어온 '영원한 출판인'이었다.

1950년 주요섭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를 출간한 것을 비롯 한국전쟁 기간에도 11종의 책을 펴냈으며 이후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빚더미에 앉았지만 끊임없이 독자와 만났다. 한국전쟁 와중에 창립동인이 흩어지는 위기를 극복하고 정진숙 대표 단독체제로 전환한 을유문화사는 식민지 시절 우리 말을 보존하기 위해 발간하기 시작한 '조선말 큰 사전'을 10여 년의 험난한 고비 끝에 1957년 완간했다.

'조선말 큰 사전'과 함께 해방 이후 한국 사회계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해 7년에 걸쳐 간행한 '한국사'(전 6권)는 국내 출판사의 기념비적 출판물로 남아있다. 을유문화사는 또 '유문고'를 통해 본격적인 문고본 시대를 열면서 지식 대중화에 앞장섰으며, '세계문학전집', '구미신서', '현대미국단편소설선집' 등을 발간하면서 일본판을 중역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철저한 원어 중심의 완역주의 원칙을 세웠다.

이런 행로를 거치면서 때로는 빚더미에 올라앉아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고인이 지켜온 출판 철학은 이익보다는 '좋은 책'의 기준을 지키는 것이었다. 고인은 생전에 "나는 내야 할 원고라는 판단이 서면 수지타산을 맞춰보지도 않고 책을 출판했고 그렇지 않다면 냉정하게 거절했다"며 "수천 부, 수만 부가 팔려야 좋은 책이고 1년에 열 권도 채 팔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 책을 과연 불필요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강조해왔다. /연합뉴스

바리톤 최철 독창회

오늘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바리톤 최철(사진) 독창회가 25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최 씨는 이번 공연에서 헨델, 로시니, 폰키엘리 등 유명 작곡가들의 아리아와 가곡, 오라토리오 등을 들려준다. 또 '베토벤', '기다리는 마음' 등 한국 가곡도 선사한다.



조선대 음악교육과와 대학원을 졸업한 최씨는 이탈리아 마스카니 국립음악원에서 수학했으며 특히 '돈조반니', '카르멘', '리골레토'와 '트라비아타' '논개' 등 다양한 오페라 무대에서 활동해 왔다.

최씨는 조선대·광신대·광주교대에 출강하며 금슬회, 별간토 아카데미, 뮤즈, 브릿지 앙상블 단원으로 활동중이다.

피아노 반주는 박지현씨. 문의 062-676-164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한승원 '해산토굴' 찾은 한국문학 해외 번역가들



지난 21일 한국문학번역원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국내외 번역가들이 소설가 한승원(왼쪽)씨의 생가를 방문, 한씨로부터 작품 설명을 듣고 있다. /정홍=위직림기자 jrwi@kwangju.co.kr

“전라도 사투리 번역 가장 힘들어요”

스웨덴 등 10명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가

지역 특유 정서·어감 살리기 어려움 토로

“전라도 문인들 작품에 자주 나오는 사투리 번역이 가장 까다로운 것 같아요. 표준말과는 또 다른 느낌을 인데다 영어식 사투리로 표현을 하거나 작품 속에서 느껴지는 지역 특유의 정서나 기질을 살릴 수 없어요.” (유인래·번역가)

지난 21일 오후 장흥 읍산마을 한승원 작가의 작업실인 해산토굴. 우리 문학작품을 전문으로 번역하는 국내외 전문가 10여 명이 모여 한국문학의 번역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모임은 전라도의 한과 구수한

문학기행 하며 토론·체험

사투리가 곁들여진 지역 문화의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한국문학번역원이 국내 문학작품을 외국에 알리기 위해 해외에서 활동 중인 번역가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문학 번역 연구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참가자들. 2~4개월 동안 한국에 머물며 작가와의 만남, 문학기행 등을 통해 한국문학을 체험하는 기회를 갖고 있다. 참가자들은 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번역가와 한국 문학에 매력을 느껴 자국

의 언어로 번역해오고 있는 스웨덴, 독일, 미국 등지의 해외 번역가들이다.

이날 번역가들은 소설가 한승원씨에게 작품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해 한국문학 번역의 어려움까지 자유롭게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또 분위기가 무르익자 한승원의 소설 '멍텅구리배'를 예로 들어 실제 번역 작업과 관련된 전문 토론이 이어졌다.

“작가님의 작품 '멍텅구리배'에 보면 '수평선 근처 하늘에는 오래된 뿔잔에다 버무려서 말라놓은 깻쟁이'와 같은 구름장인들이 장구치듯 쌓여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송문·독일 튀빙겐 예버하르트 칼스 대학 교수)

“여기저기 포개져서 쌓여있는 모습을 말한 거죠. 5명이 잘 수 있는 공간에서 10명이 자기 위해 사이사이 끼어서 자는 것을 표현한 말 중에 '인간들이 장구치듯 잔다'는 말이 있거든요.” (한승원·소설가)

전북 부안 출신으로 평론가이자 극작가로 활동 중인 남권 루이스 빈치게라씨와 함께 소설가 임철우의 '그 섬에 가고 싶다'를 영문으로 번역한 유인래씨는 “나 역시 전라도 출신이지만 사투리 번역만큼은 쉽지 않다”며 “문화적 차이

때문에 그 어감을 살리는 게 힘든 것 같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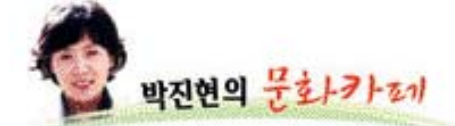
지난 1986년 김지하의 '오적'을 읽고 나서 한국 문학에 강한 매력을 느낀 뒤 노벨 문학상의 본거지인 스웨덴에 한국문학과 한국적인 정서를 소개하고 있는 런던대학 한국학센터 인테쉬 칼슨 교수는 지난 2007년 이문열의 '시인'을 번역해 한국문학번역상을 수상한 번역가다.

고모·이모 등 명칭 '혼란'

안데슈 칼슨 교수는 “번역자가 두 개의 언어와 각 나라의 정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문학 작품 번역은 참 어려운 것 같다”며 “한국의 경우 이모, 숙모, 고모, 백모 등 인간관계를 지칭하는 명칭이 다양해 이해하는 데 한 걸음 걸렸다”고 토론했다. 현재 그는 황석영의 '오래된 정원'을 스웨덴어로 번역 중이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은 한씨는 “한국과 한국 문학에 대한 애정을 갖고 전라도의 정서가 그 유쾌하게 담긴 문학작품이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토론을 마친 이들은 한국 문학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한승원 소설의 주요 배경이 됐던 생가와 회진 등 장흥 일대를 도는 문학기행을 펼쳤다. 이날 한씨는 문학기행 안내자로 나서 고향과 생가를 배경으로 쓴 시를 직접 낭송하며 작품과 창작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정홍=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광주의 '미트패킹'을 꿈꾸며

'미드(미국 드라마) 열풍'을 불러 일으킨 드라마 가운데 '섹스 앤 더 시티'가 있다. 뉴욕을 무대로 30대 싱글 여성들의 일과 사랑을 다룬 이드라마는 전세계 여성들의 가슴에 '뉴욕 판타지'를 심어놓았다.

드라마에서 주인공 4명은 일주일에 한 번씩 브런치(아침 겸 점심) 모임을 갖는다. 이들의 단골 식당은 웰시 인근의 미트패킹(Meat packing·육가공이란 뜻)에 위치한 '파스티스'. 야와 카페에 일어난 사소한 일상들을 수다로 풍다. '섹스 앤 더 시티' 성공으로 '파스티스'는 뉴욕을 찾는 관광객들의 명소가 됐다. 마치 얇아 엔파이어 스테이트빌딩, 자유의 여신상의 인기를 뛰어넘을 정도다.

'파스티스'가 유명세를 타게 된 것은 비단 드라마의 후광 때문만은 아니다. '마블로블라니'(고급구두 브랜드), '우스타 프로젝트'(갤러리) 등 명품숍과 갤러리가 한데 어우러진 미트패킹만의 아우라(Aura)도 한몫하고 있다.

미트패킹(맨하튼 서쪽 14번가와 9번가 사이)이 처음부터 '물 좋은' 곳은 아니었다. 이듬해로 도축장이던 미트패킹은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250여 개의 육가공업체가 밀집된 축산시장이었다. 하지만 90년대 중반 도심 재개발로 인해 육가공업체가 하나 둘씩 미트패킹을 떠나면서 쓸쓸한 거리로 전락했다.

미트패킹이 뉴욕의 '가장 떠오르는 동네(hot spot)'로 변신하게 된 것은 예술인들의 대이동 때문이었다. 소호의 값비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가난한 아티스트들이 하나 둘씩 이곳에 동자를 틀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5~6년부터 유명갤러리와 레스토랑, 명품숍 등이 노후된 기존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복고와 현대가 공존하는 뉴욕의 소풍 중심지로 떠올랐다.

허름한 지역이 산뜻한 예술촌으로 바뀐 예는 가까운 중국에도 있다. 베이징의 다산즈(大山子)는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군수공장과 창고들이 즐비한 폐허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베이징시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100여 곳의 갤러리와 200여 개의 작가 작업실이 몰리면서 이젠 중국을 대표하는 '예술 특구'가 된 것이다.

최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쇠락해가는 대인시장을 예술의 거리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발표해 지역문화계를 설레게 하고 있다. 추진단은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시장 점포 30곳을 임대한 뒤 예술인들에게 무료 제공해 창작과 전시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미트패킹과 다산즈의 사례에서 보듯 재래시장과 옛 공장은 더 이상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흙물'이 아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예술을 꽃피우는 토양이자 색다른 매력을 발산하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인시장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광주의 미트패킹'으로 부활하게 될 날을 기대한다.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Movie advertisement banner for 'Happy Time 영화안내' featuring various cinema listings like 메가박스, 엔터시네마, 콜롬버스시네마, 씨너스전대, 하미시네마, and 제일시네마 with showtimes and movie titles.